

임진년 새해가 성도(成道)의 새벽으로 밝았습니다. 진리의
빛으로 새해를 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분들이 지혜와 자비
가 스스로 가득하라는 심심상인(心心相印)의 뜻입니다.

시간의 한 편(片)을 담당한 모든 분의 공심(公心)과 원력
(願力)은 지혜의 눈으로 오늘의 안개를 헤쳐가자는 근념(勤
念)의 공덕이었습니다.

자비롭게도 여러분의 선업(善業)이 모든 사람들의 안락과
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.

불기2556년 새해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